



# ‘안전’으로 세우는 안동의 랜드마크 안동시민에게 행복 선사

한국남부발전(주) 안동천연가스건설소

우리나라 역사의 보고(寶庫)이자 정신문화의 중심인 경북 안동시.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등 유서 깊은 선비문화로 유명한 이곳에 앞으로는 ‘최첨단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는 수식어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 풍산읍 일대에 대규모 청정에너지 발전시설인 ‘한국남부발전(주) 안동천연가스건설소’가 점차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이곳 현장은 첨단 친환경 신기술을 동원해 시공에 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동의 상징물인 서의문을 본뜬 정문과 고택의 담장을 연상케하는 담에 기와를 얹는 등 건축물 전반에 안동 고유의 멋과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또한 에너지 파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모두 안동천연가스건설소의 자부심과 자량이지만, 이곳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이다. 산업 재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해 선비정신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 연결기 기자 skw@sk.com

### 안전관리의 기본은 '술선수범'

완벽한 안전현장의 공통적인 특징인 '소장의 높은 안전의식'은 이곳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이곳의 총책임자인 박세현 소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직접 안전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소장부터 안전을 중요시 여기고 술선수범을 해야 현장 임직원 모두가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안전 교육'과 '아침체조'이다. 박 소장은 수시로 직접 이를 주관한다. 한국남부발전(주) 본사와 전국 각지 주요 현장에서 안전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답게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실무지식을 직접 임직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박 소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본

으로 신작업안전시스템, 재난안전시스템 등 최상의 안전시스템을 갖춰놓았지만 이것이 무재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발주처'가 현장 안전의 중심

이곳 현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안전관리의 중심에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주) 안동 천연가스건설소'가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내 현장의 경우 발주처는 포괄적인 관리만 하고 시공사들이 주로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발주처가 안전관리의 틀을 짜고 시공사가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지휘한다. 바로 '한국남부발전(주) 안동천연가스건설소'가 이런 선진국형 안전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박세현 소장을 비롯해 류종관 안전품질팀장, 이성우 과장 등 발주처의 안전품질팀 모두가 상당한 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 못지 않은 지식과 기술력이 있어 발주처가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장점은 이곳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안전관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곳은 컨소시엄으로 크게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굴지의 대형 건설사로 수준 높은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동일 현장 내에서 두 개의 체계가 공존하다 보니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펼쳐지지 않았다. 이를 간파한 한국남부발전은 즉각 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



현장에 보급했다. 안전관리자 유니폼 통일, 안전지적서 발행 기준 통일, 통합 출입정보 관리시스템 적용 등이 그 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는 현장 내 안전 관계자라면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게 되는 등 사각지대가 없는 철저한 안전관리체계가 뿌리내리게 됐다.

### 상생의 안전관리 도모

이곳은 협력사와 함께 수시로 회의를 하고 점검함으로써 협력사들의 안전 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협력사들이 올바른 안전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사의 우수한 안전기법을 적극 전수하고 있다. 아울러 초대형 안전현수막 부착 등 안전VM(Visual Management) 실시, 방문객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및 전용 보호구 지급, 체계적인 재난비상관리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곳 현장은 발주처와 시공사 그리고 협력사가 조화를 이룬 안전관리의 모범을 보여준다. 이곳의 상생하는 안전관리가 더욱 많은 현장에 퍼져 정체를 보이고 있는 건설 재해가 큰 폭의 감소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mini interview



박세현 소장

### 安全萬事成(안전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의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한자성어를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이 곧 이 성어와 같은 뜻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즉 안전만사성

(安全萬事成), 안전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은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바탕이 될 때만이 선보일 수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면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는 곧 원활한 시공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지어지기 마련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안동 시민들에게 행복한 선비전기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여 얻은 성과물로는 결코 이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무재해 준공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류종관 안전품질팀장

###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

안전과 품질을 담보로 절대 시공을 진행하지 말라는 소장님의 철학에 따라 저희 현장에서는 타협이 없는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원 아웃(One out) 제도'의 운영을 통해 음주상태 출입자,

폭력·폭행 소란자, 무면허 장비운전자,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미사용자 등 8대 위험행위자는 현장에서 적발 시 즉각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 초반에 근로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지만 원칙에 입각해 끝까지 관철시킨 결과 지금은 적발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장에 정착했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사소한 아차사고도 없어지는 등 현장 분위기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안전을 규제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를 생활화한다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